

2012. 8. 31(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8월 3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조봉연	6361-3270 010-3727-2301
GIS개발팀장	김태준	6361-3275 010-3248-3289
주무관	강점순	6361-3289 010-2765-8735
홈페이지	aerogis.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 과거 40년 서울시내 항공사진, 포털보다 고해상도 서비스

- 1971년~2012년 매년 촬영된 서울시 항공사진 서비스 업그레이드
- 통상 사용하는 50cm급 → 25cm급 해상도 높여 도로 제한속도 표시까지 선명히 확인 가능
- 학술연구, 각종 분쟁 시 법원 증거 자료 채택, 세금 관련 자료 등으로 활용
- 어릴 적 동네 사진, 친구들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도 가능해져
- 서울시 주요 역사 및 랜드마크 시설 등 변천사를 별도의 테마서비스로 제공
- 市, 시민 자산인 고해상도 항공사진 활용도 높이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것

- 서울시가 1971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40년간 항공사진 서비스를 포털보다 높은 해상도로 제공한다. 또, 검색한 항공사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27일 오픈한 ‘서울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를 통해 제공 중인 항공사진을 보다 높은 해상도로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서 시민들은 올해 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사용하는 50cm급 → 25cm급 해상도 높여 도로 제한속도 표시까지 확인 가능>**

- 서울시 역시 대부분 검색 포털이나 타 기관처럼 도로위 제한속도 숫자를 확인할 없는 50cm급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제한속도 숫자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25cm급 고해상도로 항공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50cm급 해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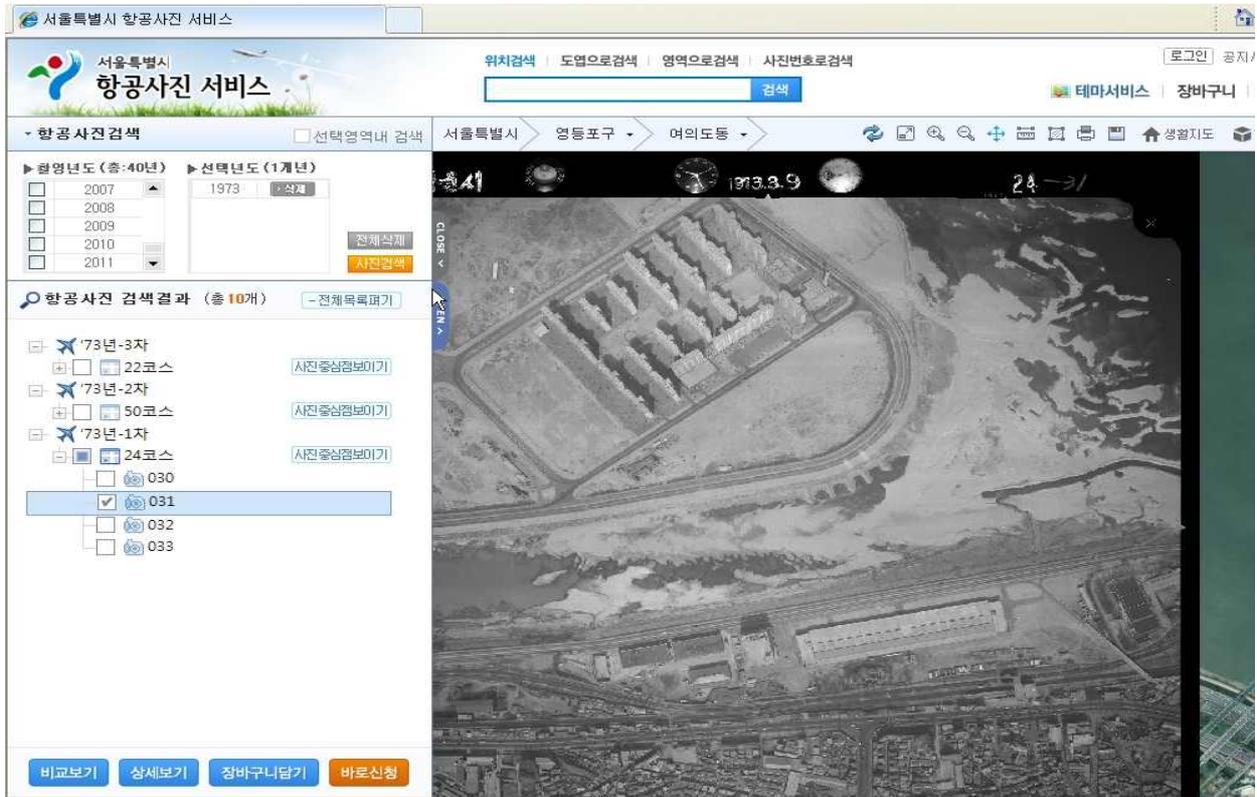


<25cm급 해상도>

- 예컨대 25cm급 해상도는 도로에 있는 제한속도 표시까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도 사진이 깨지지 않는 정도의 선명함을 말한다.

**<학술연구, 각종 분쟁 시 법원 증거 자료 채택, 세금 관련 자료 등으로 활용>**

- 시는 서울시의 항공사진이 선명한 해상도로 인해 학술연구, 각종 분쟁 시 법원 증거 자료 채택,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세금 관련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 여의도동 63빌딩 근처, 1973년 항공사진 자료 〉

- 또, 항공사진 기반의 SNS 서비스가 개시되면 어렸을 적 우리 동네 모습을 담고 있는 과거 항공사진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함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과 건물 등에 대한 연도별 변천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뉴타운 지역 등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 현재 항공사진 검색사이트에는 서울역, 여의도, 서울숲공원 등 별도의 테마 서비스 24개 지역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도 항공사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공동활용’ Open API<sup>1)</sup> 모듈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항공사진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새롭게 제작해야 했던 화면 이동·확대·축소 등의 기능을 지도와 함께 그대로 받아 쓸 수 있게 돼 중복투자 방지와 최신 항공사진 적용 등 행정시스템 활용성 및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 시는 내부적으로 API를 제공해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서울 공유도시 정책에 따라 민간에게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시민들은 항공 확대사진, 양화필름, 밀착사진을 요청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 시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열람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능하다.
- 항공사진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원본크기 항공사진은 1매당 일만 원, 확대 항공사진과 양화필름은 1매당 각각 이만 원이다.

1)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포털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을 말함. 예로 네이버 지도 API를 자신의 웹에 삽입하여 지도 검색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 항공사진 발급에 따른 수수료(1매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구 분	원본크기 항공사진 (23cm×23cm)	확대 항공사진 (30cm×36cm)	양화필름 (23cm×23cm)
사진축척	약 1:5,000~7,000	약 1:1,000~1,500	약 1:5,000~7,000
수수료(원)	10,000	20,000	20,000

□ 황종성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자산인 항공사진을 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나 학술연구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향후 시민들의 개인자료 사진도 지도에 등록해 공유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여 더욱더 다양한 서울의 과거변화 및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